

日本の 韓國學 研究 現況

— 특히 역사학을 중심으로 —

秋月 望*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역사학 연구의 최근 동향 |
| II. 일본에 있어서 한국학 연구·교육의
현단계 | IV. 맺음말 |

I. 머리말

근래 일본 국내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관한 문제를 테마(theme)로 삼거나 한국을 필드(field)로 하는 연구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학술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일본에 있어서 한국 연구는 공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얼마후에는 새로운 학풍과 사상조류속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물론 거기서 남·북한 학자들의 문제 제기에 큰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논술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점이다. 하나는 일본의 한국학 연구가 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공백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후 사상조류와 한국 연구와의 상관관계 고찰 등을 통해서 소개한다. 또 하나는 현시점에서 한국 연구의 전체상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한국 근대사 연구 동향에 대해 몇가지 논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겠다. 필자의 한정된 지식과 능력으로 일본의 한국 연구 현황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논술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지면에도 제한이 있다. 여

* 日本 明治學院大 教授

기서 언급할 것은 일본에 있어서 한국연구의 일측면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한국학」이라는 말은 일본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분야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구분이 학문적인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점이다. 여기서는 극히 대략적으로 한국에 관한 테마 혹은 한국을 필드로 하는 연구를 편의상 「한국학」이라고 한다.

1. 전후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 추이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고 나서 몇년간 일본의 한국학 연구는 정체되었다.

그때까지 일본에 의하여 거의 독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한국의 연구는 「자기 나라 식민지로서의 조선」연구이며, 아무리 실증주의를 표방하고, 순수 아카데미즘(academism)을 주장하더라도, 천황제 일본의 침략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패전과 동시에 조선은 물론, 중국 대만 남방제도 등, 소위 「外地」로부터의 일본인 철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국외에 설치한 시설이나 기관에 소속되었던 학자·연구자도 속속 귀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한국연구 공백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明治維新 이후 일본이 가져온 한반도나 중국대륙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은, 근대 일본의 대륙 팽창 지향과 노선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학문적인 관심도 역시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명치유신 이래 자기 나라 「近代化」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침략 대상으로 설정해 왔던 「外地」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近代化」자체의 畸形化를 입증하는 것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침략 대상이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의 상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일본은 서구 근대를 인류 역사상 보편적인 발전형태로 믿으면서 아시아 침략을 서구 문명 수용과 「近代化」의 달성을 입증해 주는 지표로 간주하였었다. 그러한 일본에 있어서 1945년에 당한 패전은 「近代化」가 좌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近代化」추진과정에서 유도된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전사회적인 희박화를 가져왔다. 아카데미즘 세계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었던 가치관의 대변동 속에서 새로운 학문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될만한 계기도 없었다.

두번째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일본이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서 독점적으로 행하여 왔던 한국학 연구에서는, 조선 식민지화 이후 연구 시설·기능을 조선에 옮겨 京城帝國大學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국내의 연구시설·교육기관에 언제나 자료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에 반하여 일본 국내에서는 연구환경이 거의 정비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침략 동화정책이 심화되면서 축소당할 추세에 있었다. 패전에 의하여 그러한 연구 거점을 한꺼번에 잃었던 일본에서 한국학 연구는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패전과 식민지 상실 속에서 연구할 기회와 수단을 잃고, 게다가 그 때까지 가져온 가치관의 커다란 변동에 대처할 길을 찾지 못한 채, 일종의 허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패전 직후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학 연구 정체 상태는 단순히 전쟁에 의한 황폐가 초래한 사회적인 혼란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니, 상술한 바와 같은 戰前 일본의 한국학 연구가 지닌 방향성과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사회가 혼란기로부터 탈피하는 것과 발을 맞추어 한국학 연구도 재출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하나는 1945년까지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그 위에 새로운 연구를 하려는 움직임이며, 또 하나는 「戰後歷史學」으로 불리는 제국주의 비판, 침략주의 비판에 입각한 사상 조류 속에서 일어난 한국학 연구 움직임이었다.

패전 이후, 조직적인 한국학 연구 재개는 1950년에 발족한 「朝鮮學會」에서 비롯된다. 「朝鮮學會」는 天理大學을 중심으로 하여 天理教團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가며 발족하였다. 그 결성에 즈음하여 京城帝大에 재직하였던 교수진이나 한국내에 있던 각종 기관(中樞院·朝鮮史編修會 등)에서 연구 활동을 했었던 학자·연구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¹⁾

天理大學은, 그 전신인 天理外國語學校(후일의 天理語學專門學校)가 창설된 1925년에 朝鮮語部를 두었다. 창설 목적은 교단의 선교와 포교 활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국립인 東京外國語學校(현재의 東京外國語大學)에 설치되어 있던 朝鮮語科가 「조선어가 외국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폐지되려 하고 있었던 분위기(1927년에 폐지)²⁾ 속에서 감히 朝鮮語部를 신설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天理外國語學校는 전전·전후를 통하여 한국학 연구·교육 기관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朝鮮學會가, 1950년에 학제 개혁으로 새로 개편된 天理大學 朝鮮學科에 사무국을 둔 것은 그러한 일본 국내의 빈약한 연구 환경에 기인한 것이지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朝鮮學會」의 성립은 일본 한국학 연구의 재개·재건이란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학회가 성립된 당초의 취지·경위로 보면 알다시피 침략기의 한국학 연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무비판적으로 세습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과 다른 또 하나의 움직임도 있었다.

1) 天理大學, 《天理大學50年史》(1975년).

山田忠一, 「刊行のことば」 『朝鮮學報』 제119·120호(1986년).

2) 《東京外國語學校沿革》(1932년). 東京外國語學校 전신인 高等商業學校附屬外國語學校에는 1897년에 韓語科가 설치되어 日韓併合 後 1911년에 朝鮮語科로 개칭되었다.

大村益夫, 「大學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狀」 《季刊三千里》38호(1975년) 참조.

「戰後歷史學」³⁾이라고 불리는 사상 조류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연구가 그것이다. 일본에서 1970년대 전반까지는 현대 세계를,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 帝國主義 對 民族解放, 獨占資本 對 總勞動, 先進國 對 開發途上國이라는 식으로 二元的 혹은 二分的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등 사회주의 국가 탄생에 의하여 일본의 역사 연구자, 특히 중국사·한국사연구자는 큰 자극을 받았고, 그러한 정세 속에 세계사적인 필연성과 인류의 미래를 느낀 연구자가 적지않았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적 관점을 우위에 두는 역사학에서는, 그 의미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갖는 마르크스주의를, 그 중에서도 服部之總에 대표되는 「講座派」 흐름을 계승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소위 「戰後歷史學」이 형성되었다. 1960년의 日美安保條約 반대투쟁,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승리등 계급투쟁적인 혹은 해방투쟁적인 시각에 선 연구 자세를 뒤받쳐 주는 정세·상황이 계속됨으로써 이러한 연구는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1959년에 「朝鮮史研究會」가 결성되었다. 일찍이 1951년에 《朝鮮史》(岩波書店)를 내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그 밑에서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에 대한 비판의 도화선에 불을 당겨 정력적으로 새로운 한국사像의 구축을 목표로 한 旗田巍을 중심으로, 젊은 일본인·재일 한국인 연구자가 모여서 이 연구회는 출발하였다. 거기서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의 「戰後歷史學」이라 할 수 있는 「內在的 發展論」이 형성되어 갔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목적은 停滯論·他律性史觀을 자각적으로 비판 극복하려고 하는 데에 있었는데 남·북한(주로 북쪽에서)의 연구성과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였다.⁴⁾

그런데 1970년대 이후 혼미와 모색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70년대 중기에서 80년대에 걸쳐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의 실패, 중일전쟁,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의 참극,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모순이 명백해짐으로써 노동운동, 학생운동은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다.

연구 분야에도 계급적인 시각에 입각한 연구, 즉 혁명을 위한 교훈과 이론을 발견하겠다는 학문 자세는 급속하게 쇠퇴하였고, 이른 바 「한물간 것」이 되었다.⁵⁾

그러나 한국학 전반, 특히 한국사학 연구에서의 현저한 경향으로서, 그러한 전환이 상당히 늦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로 일본의 한국학 연구가 일본 국내에서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인권이나 차별 문제, 또 남북 분단 상황의 극복, 일본 제국주의 비판, 천황제 비판 등 현대적 정치적·사회적인

3) 柴田三千雄, 《近代世界と民衆運動》 岩波書店 1983년.

그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근대유럽」에 방법적·가치적인 초점을 맺은 세계사 觀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 旗田巍 「朝鮮史像의 諸問題」, 朝鮮史研究會編 《新朝鮮史入門》(1981년) 龍溪書舍

5) 小林一美, 「アジアの民衆運動と宗教 - 中國・朝鮮 -」 國際歷史學會議士日本國內秀員會編, 《歷史研究の新しい波》(1989년) 山川出版社.

과제인 긴장 관계속에 있었고 그 문제들과 대결을 학문적인 사명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고양하는 것도 일본의 일부 한국학 연구자에게 강한 영향과 자극을 주었다는 것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일본 자본주의는 더욱 더 고도한 발전을 이루어 미국과 경제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NIES가 대두하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 발전을 달성하며,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 체제의 방향 전환, 중국의 개방 경제에로의 이행, 동구 「민주화」의 커다란 흐름,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 있어서 냉전구조의 종언, 동·서독의 통일 실현 등은 계급 투쟁 사관이나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자신과 전망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있다.

70년대에 시작되어 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급가속을 더하여 왔던 국제 정치 구조의 변화, 역사적 틀의 변화, 구래의 정치적 가치관의 붕괴는 바야흐로 일본에 있어서 한국학 연구상에도 결정적인 영향 -사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을 끼쳐 가고 있다.

II. 일본에 있어서 한국학 연구·교육의 현단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일본의 한국학 연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학회·연구 단체〉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학 연구 단체로는 전술한 「朝鮮學會」가 있으며 「朝鮮史硏究會」가 있다. 후자는 분야가 역사에 한정되어 있고, 그 창립이념으로 명칭이 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회와 다름이 없다. 이 연구회는 일본의 한국학 연구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한국·조선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연구 조직은 이 둘 뿐이다.

「朝鮮學會」 회원수는 일본 국내가 480명(그 중 단체가 40), 한국이 150명(단체가 4), 그 외 외국이 30명 정도이다. 전문 분야로서는 인문과학계 거의 모든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 「朝鮮史硏究會」는 東京을 중심으로 하는 關東學會가 약 220명, 大阪을 중심으로 하는 關西部會가 125명이다. 역사학 연구자는 이 두 학회·연구회에 중복소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한국학 연구 중 정치·외교·경제 등의 분야에서 한국·조선을 연구 테마로 삼고 있는 연구자도 적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각 학문 분야·영역에서 학회·연구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일본 국내의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한국학 연구자의 층과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연구 테마가 다양화되는데 불구하고 학문적인 정보 교환이나 연구 동향의 파악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적인 영역을 뛰어넘은 學際的(interdisciplinary)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요즘 한국학 연구자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data base)화 등이 요망되고 있다.⁶⁾

그 밖의 靑丘文庫(神戶)나 東京韓國研究院 혹은 現代코리아研究所(구 日本朝鮮研究所), 朝鮮問題研究所 등 민간 레벨의 연구 기관도 있으며, 또 神戶의 무궁화회나 九州史學會朝鮮部會 등 지방 단위에서 연구 활동, 학회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학 관계 학술지로는 朝鮮學會의 《朝鮮學報》(季刊), 朝鮮史研究會의 《朝鮮史研究會論文集》(年刊), 《朝鮮史研究會會報》(季刊), 靑丘文庫의 《朝鮮民族運動史研究(구 靑丘學叢)》, 東京韓國研究院의 《韓》 등이 있고 북한의 학술 동향을 알기에 유익한 在日朝鮮科學者協會의 《朝鮮學術通報》가 있다.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한국학의 전문 학술지는 없지만 國際政治學會의 《國政治》(季刊)나 아시아經濟研究所의 《아시아經濟》 등에 한국관계 논문이 비교적 많이 실리고 있다.

기타 일반을 대상으로 《靑丘》(靑丘文化社), 《現代코리아》(現代코리아研究所), 《코리아評論》(코리아評論社) 등 잡지도 나와 있는데 각기 문화나 문학·현대 정치·국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편집되고 있다. 그러나 발간 부수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외에도 각 학문분야에 나와 있는 학술 전문지, 각 대학의 기기·요논문집 등에도 상당수의 한국학 관계 논문이 게재된다. 근래 늘어나고 있는 논문들에 대해서는, 역사관계는 비교적으로 논저목록이 정비되어 있지만⁷⁾ 그외에 총체적인 한국학 논저목록이라고 할만한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⁸⁾

일본에서 출판되는 한국 관계 전문 서적·일반 서적 목록으로서는 「現代코리아」가 1년에 한번씩 게재하는 「코리아關係日本語圖書目錄」에 잘 수록되어 있다.

연구 논문 발표수나 서적 출판수를 보면 증가 일로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한국·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이 정착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일본사회에 있어서 그 관심의 질을 향상시켜 올바른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도 한국학 연구자에게 부과된 과제라 할 수 있다.

6) 현재, 日韓交流基金(東京)에서 일본 국내 한국학 연구자에 관한 데이터 수집작업이 진행중이다.

7)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編, 《東洋學獻類目》(年刊)

石井正敏·川越泰博編, 《日中·日朝關係研究獻目録》, 國書刊行會(1976년)

京都大學文學部東洋史學科, 「近刊叢刊」《東洋史研究》

史學會(東京大學文學部), 「文獻目錄·東洋史」《史學雜誌》

史學會(東京大學文學部), 「回顧と展望」《史學雜誌》各券제5호

朝鮮史研究會, 「文獻目錄」《朝鮮史研究會論文集》

朝鮮史研究會編, 《朝鮮史文獻目錄 1945~87》(假題) 近刊 예정

8) 경제·정치·외교관계 기사색인으로서, 아시아經濟研究 《アジア經濟資料月報》에 게재되는 「雜誌記事索引」의 韓國·北朝鮮항목에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걸친 잡지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대학·대학원〉

근래 일본의 대학·대학원에 있어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역연구나 국제학연구 부문에 한국 관계 섹션(section)이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종래부터 숫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대학에 설치되어 있었던 한국관계 학과는 주로 어학이나 역사, 문학 등 학문 분야별로 설치된 것들이었다.

지역연구는 東京教育大學이 새로운 형태로 개편된 筑波大學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는데 거기에는 한국 코오스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최근 국제학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단순한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 아니라 學際的(interdisciplinary)인 학문 연구가 주장되기 시작한 이래, 차츰 지역 연구나 국제학 관계 학과·섹션을 설치하는 대학이 늘기 시작하고 그러한 가운데 한국을 연구·교육 대상으로 하는 섹션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국립 대학에서 한국(조선)을 학과 혹은 코오스 호칭으로 붙이고 있는 것은 大阪外國語大學(1963년 설치), 東京外國語大學(1977년 설치)의 「朝鮮語學科」, 筑波大學의 「地域研究·한국 코오스」(1975), 富山大學 「人文學部 語學文學科 조선어 조선 문학 코오스」(1977), 九州大學의 「朝鮮史學科」(1976) 등이 있다. 사립 대학에서도 天理大學의 「朝鮮學科」, 神田外國語大學의 「朝鮮語學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독립된 학과나 섹션으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연구·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東京大學 東洋史學科나 教養學部, 東京學藝大學, 東京都立大學, 大阪市立大學, 京都大學, 慶應大學, 早稲田大學 등 적지 않은 대학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교수가 개별적으로 한국의 경제나 정치·역사 문화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계통적이고 총합적인 연구·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대학원 레벨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학 관계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는 한국 유학 경험이나 장기 체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한국유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연구 조사를 위한 장기 체재도 증가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한국의 어학 교육 기관이 받아들이기를 고민할 정도로 증가를 보였다. 그 중에는 특정 종교 단체의 집단적인 유학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학생·대학원생의 유학도 뚜렷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

외국 연구에 있어 대상으로 하는 나라·지역에 언어를 배우고 익힌다는 극히 상식적인 일이 한국학에 관해서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원인으로 어학이나 문학등 언어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45년까지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중국·한국 연구가 한자·한문을 매체로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언어 습득을 경시하였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패전후 그러한 연구 자체에 대한 자기 비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1960년대에서도 계속되었다. 최근 한국학 모든 분야에서 차츰 한국어를 마스터한 연구자가 증가하여 왔는데 아직 그 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어 모든 학문분야에 있어 두드러진 진전이 보이고, 간행 출판물이나 발표 논문이 증가해 가고 있다. 그 팽대하고 고도의 성과를 쉽게는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 당연히 일본내

한국학 연구자는 그들 연구 성과를 참조하거나 흡수하지 않고서 연구를 행할 수 없음을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연구 성과중에는 일본어로 번역되는 것은 일부 일반성이 높은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서는 거의 번역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문·전공 분야에 관한 깊은 지식과 연구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하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참고로 작년도 시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혹은 외국어 과목으로 개강하고 있는 대학을 든다면, 국립대학 12, 공립대학(縣立 혹은 市立)9, 사립대학 55, 계 76개 대학이 된다.⁹⁾ 1961년에는 겨우 5개 대학(天理大學·京都大學·東京教育大學·早稲田大學·大阪外國語大學)에서만 개당되고 있었다. 1983년에는 국립10, 공립5, 사립8로 증가하고¹⁰⁾ 더 나아가 작년에는 1.8배가 되었다. 특히 사립 대학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경영적인 의미에서 지역연구나 學際的인 연구라는 새로운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다.

〈연구 동향의 개관〉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에 관계되는 연구는 상당히 여러분야에 걸쳐 양적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그 특징이나 경향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곤란해졌다. 1945년 전후까지 인문과학 중심의 연구로부터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학문 분야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학」이라고 하는 엄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한국에 관계되는 연구 자체를 한국학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문부성의 科學研究費助成에 의한 한국 관계 연구,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 관련 서적, 발표된 논문을 통하여 부분적이거나 개관하기로 한다.

1986년도는 한국에 관련된 테마로 科學研究費 조성을 받아 행해진 연구는 10건이었는데 1989년도는

9) 外國語授業科目の開設狀況(1989년도)

日韓文化交流基金조사

國立 12校

北海道 筑波東京 東京外國語 東京學藝 當山 信州 大阪外國語 島根 廣島 香川 九州

公立 9校

東京都立 横浜市立 静岡縣立 愛知縣立 大阪女子 大阪市立 大阪府立 神戸市外國語 下關市立

私立 55校

北海道東海 流通經濟 獨協 神田外語 八千代國際 麗沢 亜細亜 桜美林 慶應義塾 惠泉女子園 國學院
上智 昭和女子 聖心女子 創価 大正 大東文化 拓殖 中央 津田塾 帝京 東海 東京女子 二松學舍
日本 法政 明治學院 立教 和光 早稻田 神奈川 フェリス女學院 愛知 中部 名古屋女子 日本福祉
京都産業 京都精華 花園 佛教 立命館 大阪經濟 法科 大阪藝術 大阪樟蔭女子 追手門學院 關西
桃山學院 關西學院 神戸女學院 天理 西國學院 九州國際 九州産業 西南學院 熊本商科

10) 大村益夫 前掲論文.

19건, 1988년도는 22건으로 되어 있다.¹¹⁾ 신청 총수 및 채택 건수¹²⁾로 보면 극히 적은데 신장률로 보면 급피치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나 조선이라는 분류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며 심사의 기준에도 대상 지역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 관련 테마로 신청하는 케이스가 증가한 결과라고 보인다. 분야로는 동양사·경제사·철학·어학·문학·인문지리학·사회학·교육학·과학교육·경제학·경제사정·정책학·건축계획·도시계획·생물학·화학·광물학·식물학·영양학 등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¹³⁾

11) 學術情報센터 NACSIS-IR의 「科學研究費補助金成果概要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함. 복수년도에 걸친 연구도 모두 건수로 계산 됨.

12)	신청건수	채용건수
1986년	54,056	15,661
1987년	56,807	16,846
1988년	58,498	17,689
1989년	60,624	18,081

13) 그 분야와 테마는 다음과 같다.

建築計画・都市計画	日本と韓國の住居近代化 過程に關する比較研究
教育學	おの日本人教習いの研究—中國・朝鮮の教育近代化過程いもうける日本人の活動とその役割
社會學	日本宗教の複合的構造と都市住民の宗教行動に關する實証的研究
建築計画・都市計画	用途地域指定制度からみた韓國諸都市の日本の都市との比較研究
經濟史	旧植民地朝鮮農業に對する日本人の經濟進出と地主經營に關する個別事例の實証的研究
印度哲學	華嚴—乘法圖丹通鈔の研究
外國語・外國文學	日本現存朝鮮古刊本の調査とその語學的・書誌學的研究
外國語・外國文學	日本と朝鮮における近・現代文學の相互交渉に關する史的檢証
鑛物學	花こう岩類の微量元素含有量に關する研究
科學教育	我が國と韓國における工業技術教育の比較研究
建築計画・都市計画	日本と韓國の住居の近代化過程に關する比較研究
中國哲學	東洋における自然觀の比較研究
經濟事情・政策學	日本海地域における在日朝鮮人問題の歴史的・經濟的研究
東洋史	古代朝鮮と中國・日本との文化交流
經濟事情・政策學	先進國と中進國のマクロ經濟の調整プロセスの比較(日・米・ブラジル・韓國を中心として)
人文地理學	明治期牛疫流行の歴史地理學的研究—檢疫制度の整備と朝鮮牛取入・流通—
東洋史	冊封體制の解體と清末知識人の東アジア認識—台灣・琉球・越南・朝鮮問題を通して—

한편 서적의 출판 건수로 보면 1988년에 출판된 한국·북한 관계 일반서적·전문서적은 약 400종¹⁴⁾에 달하며 분류별로는 다음과 같다.

역사-62, 사회·문화-49, 경제·산업-45, 북한-40, 언어-31, 예술·스포츠·음악-29, 정치·외교-27, 재일 한국인-26, 지리·지식·기행문-25, 문학-23, 민속·습관-17, 종교-9, 목록·편람-5, 법률-4, 교육-3

이들 중 일반서적은 반드시 전문적인 학술연구의 동향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본 국내의 對韓國인식·관심이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된 논문의 수는 학술적인 연구 수준과 현황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학이라는 장르는 정리된 총제적인 목록은 없다. 다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말미에 전년도의 문헌 목록이 게재된다. 역사학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되어 있는데 현대 항목에는 정치·외교·경제 분야 등의 논문도 수록되어 있어 어느정도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목록에 의하면 1988년도 각종 잡지에 발표된 한국 관계 학술논문은 247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기술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한국학 연구의 현단계를 짐작할 만한 몇가지 자료를 제시해 보았다.

→ 經濟學	近世日本朝鮮貿易の實証的考察-「和館貿易」を中心に-
海外學術研究	韓國西・南海岸における河口・沿岸域および干拓地の土壤と生物群集の調査
海外學術研究	韓國における觸媒科學の研究とそれに関する工業の動向調査
海外學術研究	韓國食文化の日本への影響に関する研究
科學教育	アジアNICS諸國比較研究(I):韓國・台湾
科學教育	東アジア比較研究(II):北朝鮮・ベトナム
科學教育	日本・台湾・韓國經濟の長期發展(戰前・前後を含む)の分析
重點領域研究	中國の華僑政策と華僑教育に関する總合的調査研究
鑛物學	日本および近傍の大陸縁邊部の花こう岩岩石圈と関連金屬鑛床に関する研究
社會學	在日韓國・朝鮮人問題をめぐる社會學的研究
經濟事情・政治學	韓國における經濟發展と勞動政策の展開に関する理論的實証的研究-日本との比較
教育學	在日韓國・朝鮮人子弟の教育における「民族性」保持に関する調査研究-「多文化教育」(multi-cultural education)の視点から
一般研究(C)	朝鮮の古歲時記「東國歲時記」の基礎的研究
重點領域研究	東アジアの發展モデルII:政治と國際關係
重點領域研究	「儒教文化圈」の經濟と社會
重點領域研究	「ASEANとアジアNICSにおける社會變動の比較研究-都市・農村關係を中心に

14) 《現代코리아》 제296호, 1989년 11월.

15) 《朝鮮史研究會論文集》 NO. 26, 1989. 3.

III. 역사학 연구의 최근 동향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는 한국학 연구 동향에 대하여 최근의 한국 근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특징의 하나는 「內在的 發展論」에 대한 재평가·재검토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6월에 발표된 並木眞人の 논문¹⁶⁾이 그러한 한국 근대사 연구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다. 그는 45년까지 일본인 연구자가 만들어낸 한국사像을 비판·극복하기 위하여 구축된 「內在的 發展論」이 새로운 한국사像을 부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의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內在的 發展論」이 지닌 今日적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45년 이전에 일본인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한국사像은 停滯論과 他律性史觀으로 특징지워지는 것이었다. 그 역사관에서는 서구 기원의 발전 단계설을 세계사적인 보편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대 서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일본의 선진성과 조선의 후진성을 주장하였다. 服部之總로 대표되는 「講座派」도 普遍的 發展段階說을 전제로 선진·후진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계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역사관이 군국주의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패전후 1960년대까지 일본의 한국사 학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停滯論·他律性史觀을 비판·극복할 필요성이 거론되기는 하였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제기되기에 이르지지는 않았었다.

그러한 속에서 북쪽에서 朝鮮科學院 歷史研究所편 《조선 근대 혁명 운동사》(1961)를 비롯해서 일련의 연구¹⁷⁾가 발표되면서 자본주의 맹아문제, 부르조아 민족 운동 전개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거기서 조선에 있어서도 史的 唯物論에 입각한 발전 단계가 관찰됨을 확인하고 내재적 계기에 의하여 서구 근대와 동질적인 발전의 방향성이 존재하였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 한국에 있어도 타율성 사관·정체론의 극복이 주장되었다.¹⁸⁾ 이러한 남북 양쪽으로부터의 문제 제기를 받아 일본에서도 발전적이고 자립적인 한국사상(像)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연구가 추구되어 「內在的 發展論」으로 확립되었다. 개별 연구에 있어서는 조선의 내부에 존재한 서구적인 발전으로 향한 諸要素, 즉 부르조아적

16) 並木眞人, 「前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の現段階 -〈內在的發展論〉再考-」, 歷史科學協議會《歷史評論》1990 校倉書房.

17) 金錫亨, 「삼한·삼국의 일본열도내 분국에 대하여」, 《歷史科學》1963년 1호, 金錫亨·金熙一·孫永鍾, 「소련아카데미편(세계사)의 조선 관계 기술에 있어서의 중대한 오류에 대하여」, 《勞動新聞》1963년 9월 30일付.

18) 李基白, 「植民地主義的韓國史觀批判」, 《韓國史新論》(1961년) -潮閣, 金溶燮 「日帝官學者들의 朝鮮史觀 -日本人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 《思想界》1962년 2월호.

이고 非아시아적인 요소를 발굴·발전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梶村秀樹나 差在彦 등에 의한 일련의 연구는 근대화를 목표로한 변혁 주체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 「근대」가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입각한 서구적인 근대를 전제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근대 유럽에 대하여 방법적·가치적 초점을 맞춘 역사학의 조류는 패전후 일본의 일본사 연구등에서 재빨리 소위 「戰後歷史學」으로 확립되어 있었는데 「內在的 發展論」도 그 「戰後歷史學」과 공통되는 문제 의식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內在的 發展論」의 성립과 거의 동시기에 「戰後歷史學」은, 「아시아性」을 「負」로 파악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負」이기 때문에 생기는 변혁을 지향하는 彈性으로 주목하는 새로운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內在的 發展論」에서는 조선에 內在되는 非아시아性(부르조아적 요소)을 변혁과 발전의 계기로 증시하고, 일본에 의한 침략은 前近代的 아시아 性이 잔존하였다는데 그 원인을 보려고 하였다. 즉, 서구 근대를 일정한 도달점으로 하는 보편적 합법칙성의 길을 걸어가던 조선의 방향성을 후진 유럽으로서의 아시아적 일본이 왜곡시켰다고 봄으로써 그러한 일본에 의한 발자취를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편적 발전법칙에 입각하여 서구적인 근대를 지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한편에서는 일본 근대화를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한편에서 같은 논리로 조선의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內在的 發展論」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유물론에서 보면 본래적으로 고차원 단계에 있어야 할 중국은 개방 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경제 파탄이 명확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나 대만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하였으며 일본도 경제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개방의 진전은 마치 근대 서구에 기원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 노선의 승리를 확신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한 문맥속에서 근대를 찬미하는 것은, 동시에 군국주의 일본에 의한 「근대」화 노선과 그 과정으로서의 대외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화될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일본 근대화 노선의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西歐文明至上主義」나 「社會進化論」적인 역사해석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다.

趙景達은 일련의 논문¹⁹⁾을 통하여 개량(온건)개화파에서 찾을 수 있는 유교적인 王道論 속에 발전을 위한 계기가 있었다고 논하고 있다. 즉 종내 姜在彦 등의 연구에서, 그 서구적인 근대 지향성에 주목하여 높이 평가받아온 변법(급진)개화파는 대국주의적인 지향성을 갖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한

19) 趙景達, 「朝鮮における大國主義と小國主義の相克—初期開化派の思想」《朝鮮史研究會論文集》22, 1985, 同 「金允植における民衆觀の相克」《アジア研究》11, 1987, 同 「朝鮮近代のナショナリズムと東アジア—初期開化派の「萬國公法」觀を中心に」《中國—社會と文化》4, 1989, 同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批判の論理の形成—愛國啓蒙運動期における文明觀の相克」《史潮》新25, 1989.

지향성보다는 오히려 道義에 입각한 소국주의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는 개량개화파가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며 「近代」를 초월하려는 방향성을 내포하였었다고 본다. 霸道에 의하여 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에 대한 강인한 비판과 저항의 논거도 개량개화가 지향하였던 王道論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류가 그 후 애국계몽운동에서 삼일운동에까지 계승되어 갔다고 보고 있다.

吉野誠는 「內在的 發展論」에 의거하면서도, 일본 근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비판의 논거를 일본 근대가 지닌 前近代性·아시아性에서 찾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개별 연구를 통하여 일본 幕末에서 明治期에 걸친 對朝鮮觀을 분석하며 脫아시아主義든 아시아主義든 어느쪽에서도 近代西歐文明至上主義에 입각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고 그것에 대한 비판에 역점을 두고 있다.²⁰⁾ 당연히 조선에 있어서의 서구 근대 지향성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이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 月脚達彦는, 趙景達에 의한 연구에 촉발되며 西歐近代를 기준으로 하여 애국계몽운동을 평가하여 온 「內在的 發展論」에 입각한 사상사 연구에 방법론적인 회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서양 문명 수용에 있어서 생긴 모순과 갈등을 고찰하면서 애국계몽운동에 존재하는 두가지 유형 -對日妥協이나 非妥協이나-에 대하여 새로운 시점으로부터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²¹⁾

마찬가지로 並木眞人도 이러한 「內在的 發展論」 재고의 방향성과 일본·한국에서의 개별연구에서, 西歐的 近代 혹은 그 아류로서의 일본적 근대에 대한 평가, 특히 社會進化論 수용에 있어서의 자세가 후일에 제국주의 비판의 불충분성을 초래하여 후일에 타협적인 민주주의자나 친일파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근대 지상주의와 근대 회의주의라는 갈림길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침략에 대한 타협·비타협을 생겨나게 하였다고 논하고 있다.²²⁾

나날이 격동하는 현실 속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현상 비판의 자세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시점을 견지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다.

「內在的 發展論」에 있어서 제기된 타율성 사관·정체론 극복이란 큰 성과를 계승하면서 「內在的 發展論」의 今日적인 한계성을 극복할 새로운 역사관의 확립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 吉野誠, 《大東合邦論》의 朝鮮觀 《文明研究》4, 1986, 同 「吉田松陰と朝鮮」 《朝鮮學報》128, 1988, 「明治前半の朝鮮觀」 《文明研究》7, 1989, 「福澤諭吉の朝鮮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26, 1989.

21) 月脚達彦, 「愛國啓蒙運動の文明觀・日本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26, 1989.

22) 並木眞人, 「植民地期民族運動の近代觀—その方法論的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26, 1989.

IV. 맺 음 말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인全體像과 근대사 부분의 동향에 대하여 기술해왔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 한국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존재하는가 혹은 그러한 분류가 학문적으로 유효성을 가질 만한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단지 여기서 기술해 온 바와 같이 한국에 관한 연구가 다양화되고 또 각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확대 경향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후 학제적 또는 국제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가운데 개별연구가 더 한층 심화되고, 동시에 학문영역을 초월하고 국경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연구가 필요해질 것이다.